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중단입니다.

제15대 통리원장에 원송(園松) 종사 선출

“종단중흥의 전인차 역할 기대”



원송 통리원장

불교총지종은 1월 25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중앙총의회를 개최하고 제 15대 통리원장에 중앙총의회 의장 원송(園松) 종사를 인준했다.

원송 종사는 1990년 덕화사 주교와 지송급 법사 품수를 시작으로 91년 향마급 대법사, 96년 청정지 정사, 2001년 밀인지 대정사, 2005년 4월 출세간위 종사를 품수 받았다.

6대, 7대 중앙총의회 의원, 사감위원 총지종 유지재단 감사와 이사, 서울 경인 교구장,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전당건설위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삼밀사 주교에 재임하고 있다.

원송 신임 통리원장은 “역대 통리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기

동안 소임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해 오던 업무를 중단없이 진행하고 종단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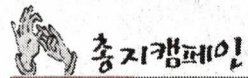
또 “형평과 기준이 살아 있는 종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고 그것이 곧 소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승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통리원장은 이와함께 “모든 일을 대화로써 풀어갈 것이며 종단 발전을 위한 사안이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설득시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2면〉

신임 원송 통리원장 약력

- 1990. 4. 10 덕화사 주교, 지송급 법사 품수
- 1991. 4. 1 향마급 대법사 품수
- 1993. 6. 26 제6대 중앙총의회 의원
- 1996. 3. 11 밀인지 주교
- 1996. 4. 1 청정지 정사 품수
- 1997. 7. 31 총무부장
- 2001. 4. 1 밀인지 대정사 품수
- 2005. 1. 14 삼밀사 주교(現)
- 2005. 9. 27 중앙총의회 의장(現)
- 2006. 4. 1 출세간위 종사 품수



“인과를 떠나 살 수 없다”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교는 그 사상이 심오해서 어렵다고들 하지만 불제자로서 신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불교의 첫 걸음부터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면 어려울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처음 입문하는 제자들에게 인과 법문을 설하고 인과를 깊이 이해하고 믿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선행을 쌓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을 행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이 인과응보의 법만 마음깊이 새기고 실천하면 훌륭한 불제자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업에 따라 윤회의 굴레는 생기고 마음이 그것을 굴리면서 가노라. 들고 돌다 그 인연이 다하는 곳에 이르면 생사의 굴레는 돌지 않고 멈추리라”고 하셨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인과의 사슬을 벗어나는 길이다. 몇 년 전 안양교도소에 어떤 재소자가 있었다. 그는 다부진 체격과 흉터 투성이의 얼굴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온 이력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 두 눈만은 매우 맑고 고요했다.

그는 교도시설 우연히 길에서 불량 학생과 시비가 붙게 되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된 재소자였다. 매를 맞고 3일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공공 양계 되자 분에 못이긴 그는 무술도장에 다니며 싸움 기술을 익혔고 거역이 그 불량학생에게 복수를 했다. 결국 폭력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교도소를 밟듯듯이 드나들다 보니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어느날 교도소에 앉아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인생은 고등학교 때 매를 맞고 복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불교 서적을 읽다가 인과를 알게 되었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한 과보가 있다는 인과법문을 접하자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바가 있어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10대 시절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려 한 인과로 오랜 세월 방황한 그가 먼 길을 돌아서 늦게나마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게 마련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법을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은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으로 변할 것이다. 누구의 삶도 인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이 달의 종조법설

마음이란 자유를 본질(本質)로 한다. 비유하자면 뜻과 같이 안 될 때는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다. 그런데 소인은 망심(妄心)으로써 자유로 하고 성인은 본심(本心)으로써 자유로 한다. 망심의 자유를 행할 때는 쾌한 것 같겠지만 행한 후에는 불쾌한 것이다. 본심의 자유는 망심을 억제하는 까닭에 행할 때는 불쾌하나 행한 후에는 쾌락하며, 선자는 재화(災禍)를 초래하나 후자는 복덕(福德)을 얻게 된다.

원정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봉행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 연구 개발해야”



원정기념관에서 봉행된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불교총지종은 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총지사서에서 원정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사원의 스승과 교도 임원진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개식사, 훈향정공, 고유문 낭독, 유가삼밀, 탄신 및 행장소개, 기념

사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기념사에서 “우리 종단은 그 뛰어난 종지와 숭고한 창종이념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화방편을 개발하지 못하고 단일하게 대처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종조탄신 10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

높여야 하며 이것이 원정 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인 올해 종조탄신 기념대법회와 종조 유묵원고 발간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종조 관련 기념예술제와 학술세미나 등 원정 대성사의 생애와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총지종은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포교활성화를 기하고 종단역량을 강화하여 종단중흥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새해 대정진불공 원만 회향

행복과 기쁨 가득한 한해 발원

불교총지종은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정해진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발원 새해 대정진불공을 봉행했다.

회향일인 1월 14일 자성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 철야용맹정진기도가 있었다. 전국 각 사원의 스승과 교도들은 이번 정해진 새해 발원과 정

진수행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일부 사원에서는 새해대정진불공 후 방생과 함께 주변의 불우이웃들을 방문, 위로행사를 갖기도 했다.

새해 불공을 마친 스승과 교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일 시 : 총기 36년 2월 19일 ~ 4월 8일

◆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 장 소 : 총지종 전 사원



사 설

새해불공 정진 지속돼야

종단은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새해불공과 14일 저녁 9시부터 새벽4시까지 철야불공을 봉행하였다.

종단에서는 새해불공을 한 해의 살림불공으로 일 년의 업장과 마장을 소멸하여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가장 큰 불공으로 삼고 있다. 이 기간에는 모든 진언행자들이 각 사원에서 1주일간 용맹정진하기 때문에 서원당은 울마니반배춤 진언의 염송소리와 행자들의 기도 원력이 넘쳐났다.

그러나 새해불공이 끝나자마자 새해불공의 열성과 정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많은 진언행자들로 넘쳐났던 서원당은 허전하기만 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단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중생의 근기를 엿볼 수 있다. 즉 1주일의 불공으로 한 해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업장은 단시간에 소멸되지 않는다. 1주일 불공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업장이 소멸된다면 그 전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전담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자신의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새해불공기간에 간직했던 마음과 노력의 정진력은 쉬지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불공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방심하고, 용맹정진하지 않는다면 새해불공기간에 노력한 정성과 발원은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타파하기 위해 매일 월초마다 불공하는 월초불공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해불공의 정진력을 지속하고 있다.

새해불공이 한 해의 살림불공이라면, 월초불공은 한 달의 살림불공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삶을 영유하면서 많은 번뇌와 장애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불공이며, 진정한 해탈을 이루는 것도 불공의 공덕이다. 그래서 새해불공, 월초불공, 상, 하반기 49일 불공을 통해 1년 내내 진언행자로서 불공하는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대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짧은 층의 여가생활, 바쁜 경제 생활 등의 원인으로 매일 월초불공, 상, 하반기 49일불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 그 불공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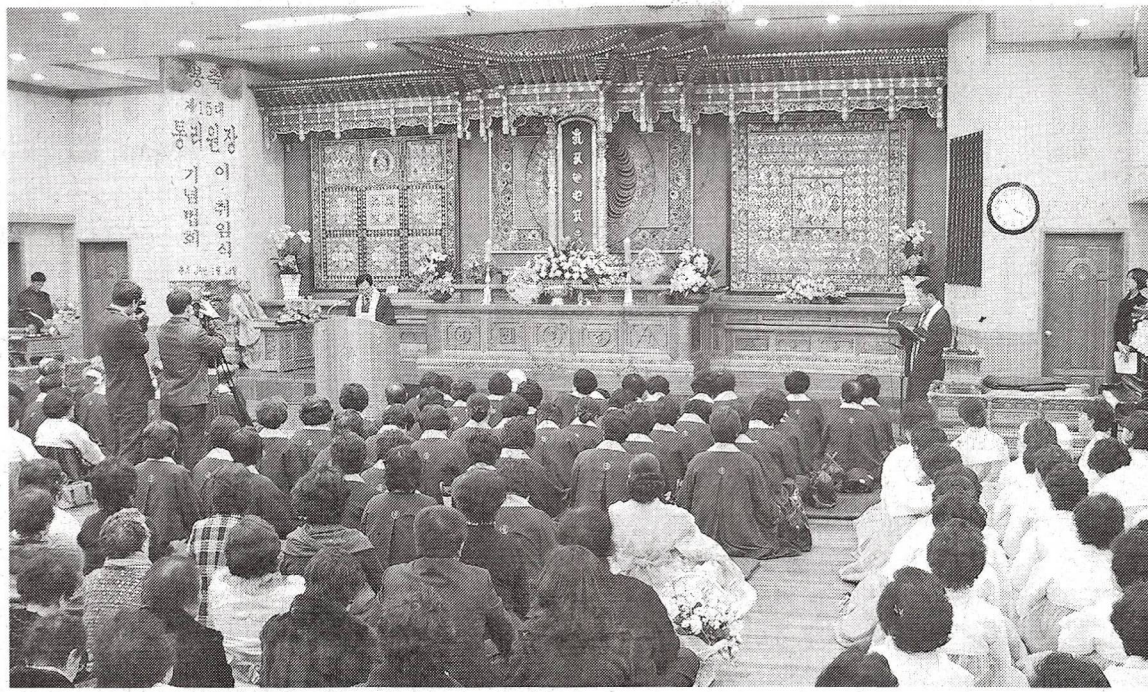
시대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여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대의 흐름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상황에 적합한 교화방법과 불공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단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공법과 불사의식의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단의 고유한 주체성을 살리면서 현시대에 적합한 수행법을 연구해야 한다. 일례로 현 시점에서 가장 잘 지켜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 호응을 일으키고 있는 불공은 새해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새해불공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많은 교도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불공기간과 불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새해불공기간에는 그동안 절에 자주 나오지 않았던 교도나 종단과 전혀 인연이 없던 불자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새해불공기간에 동참한 비교도들을 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총지종에 대한 교리 및 수행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퇴전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단에서는 새해불공의 의미를 다시한번 살리면서 교도나 비교도들에게 불공의 공덕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불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통성과 주체성은 유지하면서 현실의 상황에 맞는 불공법 개발, 가족법회, 기도도량 건립, 주 5일 근무제로 여가생활의 증가함에 따라 자생일 불공을 대신할 수 있는 불공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이·취임식 거행

원승 통리원장 "화합과 상생위한 대화의 장 마련"



◇통리원장 이·취임식 법회.

불교총지종은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총지사서에서 통리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헌화 및 훈장정공, 유가살림, 종령법어 이임사,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15대 통리원장 원승 종사는 취

임사에서 "모든 일을 원칙과 소신으로 처리하겠다"며 "지켜야 할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형평의 기준이 살아있는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종단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참고하여 종무행정에 반영할 것이며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승 종사는 "지난 주 종령님의 결정을 따라 오늘부터 소임을 맡은 제가 이 자리에서 3년간의 종무정책과 소견을 밝힌다는 것이 설부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현황을 파

악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하고 "무엇보다 원로 스승님과 일선 사원의 모든 스승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많은 질타와 의견이 있을 때 원만한 추진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 통리원장 우승 종사는 이임사에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승단의 여러 스승과 교도 여러분의 성원과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다만 유달리 짧은 임기로 인해 대외적인 교류와 국제행사 등에서 교류와 친분이 무르익기 전에서 재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우승종사는 또 종단운영과 발전은 통리원장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전 승단과 교도, 종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됐을 때 이루어지며,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호국가 불공정진 대법회 봉행

이달 19일부터 전국 각 사원

총지종은 이달 19일부터 49일간 상반기 진호국가 불공정진 대법회를 봉행한다.

진호국가 불공정진 법회는 종조 원정대행사계서 호국불교정신을 계승, 종단을 창성한 이래로 매년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 올리고 있다.

이 불사는 국민민안을 기원하는 불사로서 신라시대 이후 보여준 불교의 호국사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불사이다. 특히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의한 호국불사는 신라 이후 고려때에도 상당히 번성하였던 불사였다.

이후 오늘날 현대 한국불교의 중흥자이신 그리고 수호국계주진언 '유홍야호사'는 호국불교의 대표되는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의례를 이 경에 의거하여 불사를 올리고 있다.

알림방

월초불공이 2월 5일부터 봉행됩니다. 동해총회교 졸업식이 2월 22일 오전 10시 거행됩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바쁜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시백이 양력설을 지내기 때문에 새해도 역시 바쁘게 맞이 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2007년 새해를 맞이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 후 우리 종단과 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인 신년 불공에 들어 갔다. 새해의 다짐과 희망과 기대와 꿈을 가슴에 안고 시작 했다.

마치 등산가들이 세계의 최고봉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하듯이,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위해 지휘봉을 잡고 무대에 오르듯이 우리들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불공을 시작했다. 나도 여기에 동참해서 매일 새벽 6시 조금 넘는 시간에 집을 나섰다. 내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나 혼자 집에서 신년불공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공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불공에는 특히 너와 나 구분없이 모두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불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마음 뿌듯했다.

철야 정진 후 방생까지 잘 마쳤다. 이렇게 연말부터 연초가 모두 바쁜 나날이었다. 며칠 후 조금은 한가한 마음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의 모임을 가졌다. 시청 지하철역에서 만나 한가하게 정동길을 걸었다. 오늘 따라 이 길은 조용하고 고즈넉하기까지 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우리들은 모처럼 느리게 느리게 걷고 있었다.

느린 것의 아름다움

저녁 전이어서 어느 곳에서 저녁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이때 눈에 띄는 간판이 보였다. '느리게 걷기' 참 독특한 이름의 음식점이었다. 우리들은 다 같이 이곳을 택해서 들어갔다. 너무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곳이다. 이곳의 특징이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을 받은 후 천천히 준비한다. 진정한 웰빙이다. 누구 하나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다. 실내는 녹색식물, 넝쿨식물들을 많이 키워서 마치 실외의 정원에 온 느낌이었다. 테이블도 통나

리게 살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빨리 빨리 재촉한다. 자기의 생각을 깊이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엄마들은 너무 조금씩 생각해서 정답만을, 즉 결과만을 기다린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을 너무 일찍 조금씩 공부 시켜서 막상 공부의 뜻을 피워야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자기 분야의 연구에 소홀하고 즐기는 데에 시간을 보내다가 입사 시험 준비를 하는 상황이니 어떻게 학문에 매진할 수 있겠는가? 어른들은 무조건 일등만 하라고 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 그 어린 나이에 벌써 6~7가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아이들이 과연 학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연 커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어린 나이에 공부에 질려서 빨리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의 조급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도 운전차와 보행자의 조급증 때문이고 어린이들의 비싼 원인도 주부 후 바로 나오는 인스턴트 음식과 가정에서도 전자렌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 음식 탓이다.

어른들의 음식 문화에서도 조급증은 찾을 수 있다. 상대방과의 이름답고 훈훈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언제부터인가 원스텝이 유행된 것도 조급증때문인 아닐까? 초겨울에 개나리가 활짝 핀 것도 조급증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지나친 것인가? 너무 바쁘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세월, 이런 뒤돌아 보며 여유있게 느리게 천천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박요정(총지사 교도)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1월 27일까지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the Buddhist Social Welfare Foundation. Columns include donor names and amounts in Korean Won.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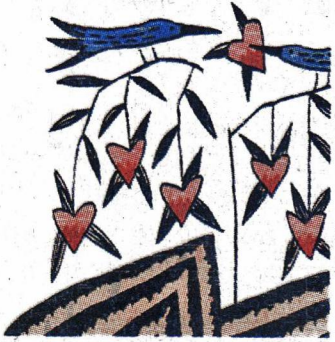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번뇌하는 그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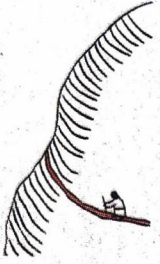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 보왕삼매론 中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욕망은 실로 그 빛깔이 곱고 감미로우나 이것이 내게는 재앙이고 중기이고

화이며 질병이며 화살이고 공포일지니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흩날릴에 짓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뽕처럼 홀로 가거라

성패의 갈림길



제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세상 사람은 제각기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이는 성공하고 어떤 이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바친다."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중에서

이달의 명상

돌아보면 회한 가득한 것이 인생이지만 내다보면 그래도 희망이 기를 거리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도 산길을 걸으면서 눈길에 내 발자국을 찍는 것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벽일 수도 있고 비림일 수도 있고 또 희망을 양에 걷는 사람일 수도 있다. 도술전이 아니라도 이곳을 이름처럼 인중 비림과 별빛이 마음권필수 있다. 그리고 늘어감을 뒤향으로 버릴 수 있다면 이곳에서 부르는 노래는 길고 위풍이 이너져 눈길을 걸으며 사랑인덕과 되된다. 인연으로 내 곁에 와 머물러 모든 것들

저 흰눈속으로 떠나갈때 사랑의 뒷모습이 얼마나 이롭더운가를 본다. 그리움은 어제의 이름이다. 오늘은 화롯불에 터지는 밤송이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기쁘리 곡심리

성전소님



원정대상사와 함께 이는 VISUAL학교

~전수경편 제12화~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Characters include a man in a suit, a child, and a green character. Dialogue includes: "자, 그럼 다음... 경문공부를 해볼까요?", "네! 어서해요. 대상사님.", "저게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칭)이란 경의 내용은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공덕을 담고 있는 전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 열거를 칭한다는 뜻이며 흔히 괄호()안에 넣어서 표현 하고 읽지 않아야 하지만 관습상 읽고 있습니다.", "에이그~ 나무토막자님, 경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네구절로 된 계송의 뜻을 새겨봅시다.", "아앗! 보물 나와랏. 뚜박!!", "헉! 나막각자님, 아니 왜 드러누워 버리세요?", "쉽다고 종이되랏. 어려워도 주인이되자." 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죠?, "배움을 중단하지 말고 배워서 알고 알아서 행하고 행하여 깨달으십시오, 나막각자님.", "첫 번째, 계수관음대비주 (稽首觀音大悲呪)란 말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대비주에 머리 숙여 귀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계수=머리숙여 귀의한다. 임? 생각보다 간단하군요.", "하하하!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대비주'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다 동일한 것이니 머리숙여 귀의하고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함께 계수관음대비주!!!", "확~그냥, 불쏘시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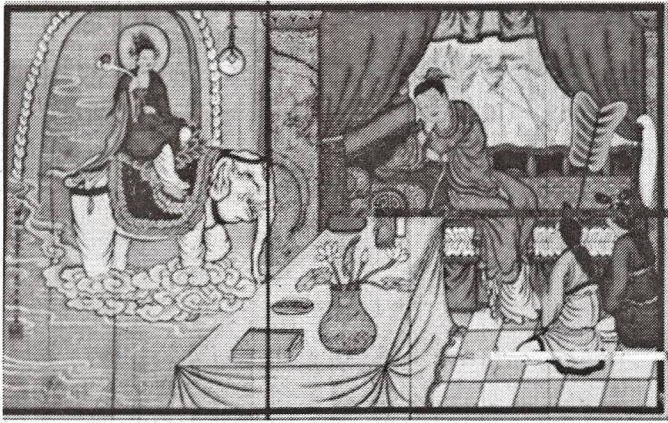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Advertisement for Buddhist Welfare Foundation. Includes sections: 설립취지 (Purpose), 지역복지사업 (Local Welfare),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Elderly Care Facility Construction), 후원회 가입안내 (Supporter Guide), 주요사업내용 (Main Activities), 청소년복지사업 (Youth Welfare),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Volunteer and Supporter Activities). Lists various programs like senior care, youth education, and volunteer work.

한국불교미술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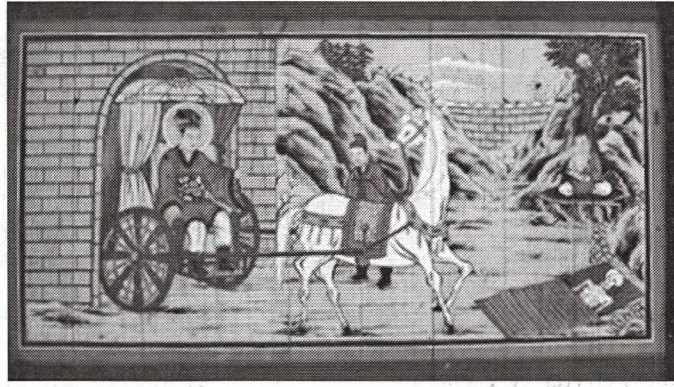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 - 팔상도(1)

팔상도 1 도술전에서 내려오심(도술래의상 : 兜率來儀相)



모든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이전에 '보살'의 시기를 거치는 법입니다. 보살은 대중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무수한 생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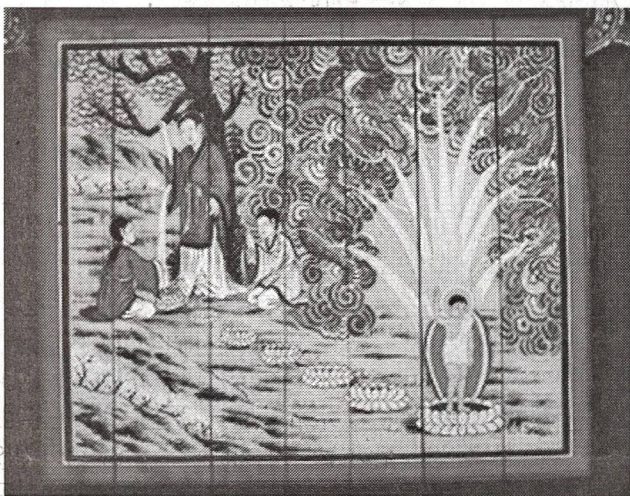
팔상도 3 세상의 고통과 직면 (사문유관상 : 四門遊觀相)



싣다르타는 궁전에서 태자의 신분으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주위는 생명력과 기쁨으로 채워질 뿐, 삶의 고통이나 슬픔은 자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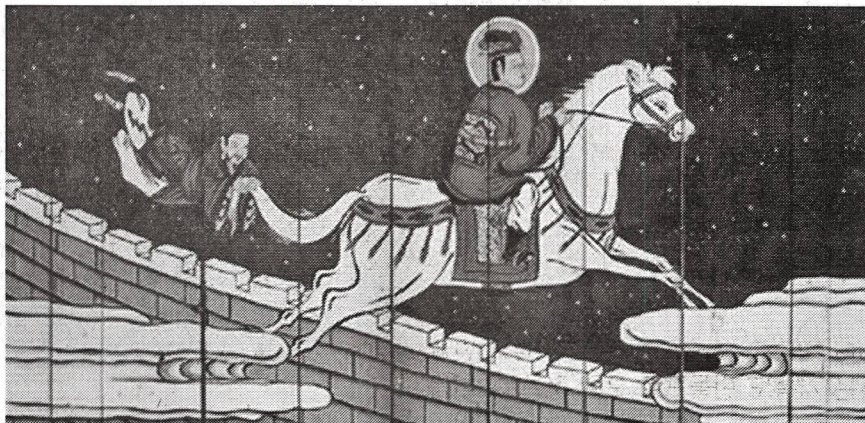
수 없었습니다. 싣다르타는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태자는 동쪽 성문 밖에서 형용어린 머리카락에 바짝 마른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손발을 떠는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랐습니다. 누구인지를 묻는 태자의 질문에 마부는, "저 사람은 노인인데, 우리도 언젠가 저처럼 늙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쪽 성문을 나서자 이번에는 문동병에 걸려 물골이 흉측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서쪽 성문 밖에선 관 속에 누워 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성문 밖에서 수도승을 보았습니다. 그 수도승은 생사를 초탈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한계에 괴로워하던 싣다르타는 마침내 그 수행자의 얼굴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언젠가는 출가수행자가 되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팔상도 2 룸비니 동산에 탄생 (비람강상생 : 毘藍降生相)



해산을 위해 친정인 폴리성으로 향하던 마야부인은 카필라와 폴리성의 경계에 있는 룸비니 동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을 반짝이고 있던 무우수(無憂樹) 나무 한 그루가 부인의 머리위로 가지 하나를 늘어뜨렸습니

팔상도 4 성문을 넘어 출가하다 (유성출가상 : 踰城出家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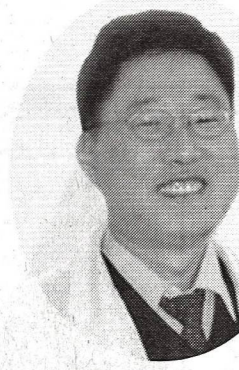


다. 마야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지에 달린 잎사귀를 쥐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고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일곱 발자국을 옮기며 사방과 상하를 둘러보고 난 뒤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이 첫 외침이아말로 모든 존재와 생명력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괴로움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가장 단적으로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존귀하다는 것은 부처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결코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여 해결하겠다는 서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 이름은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뜻에서 '싣다르타'로 정해지고, 석가족 사이에선 '고타마'로 불렸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총기동의보감

신경성으로 몸이 아프다?



김장규 원장

정신신체 장애란 소위 신경을 쓴 후에 몸이 아파지는 경우로 보통 노이로제로 일어나는 신체증상을 말한다.

'사춘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질투와 시기가 배를 아프게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민간에서 '신경성'이라고 부르는 병명이 이에 해당되며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할 때 신경성이란 마음 감정이라는 뜻이다.

또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즉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율신경에 지배를 받는 장기인 심장, 혈관, 소화기관 및 호르몬기관이 영향을

받아 분노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이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소위 '화병'도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신체적 검사를 시행시 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증상을 일으키는 기관 및 증상의 양상에 따라 진단을 소분류한다.

스스로 심리적 문제 찾아 대책 마련해야

이런 신체증상의 특징으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도 뚜렷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환자는 의사를 믿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찰과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의 스트레스를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도와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여 불안이나 분노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면 증상에 호전이 온다.

죽비소리

깊은 뜻이 맑고 고요한 것 저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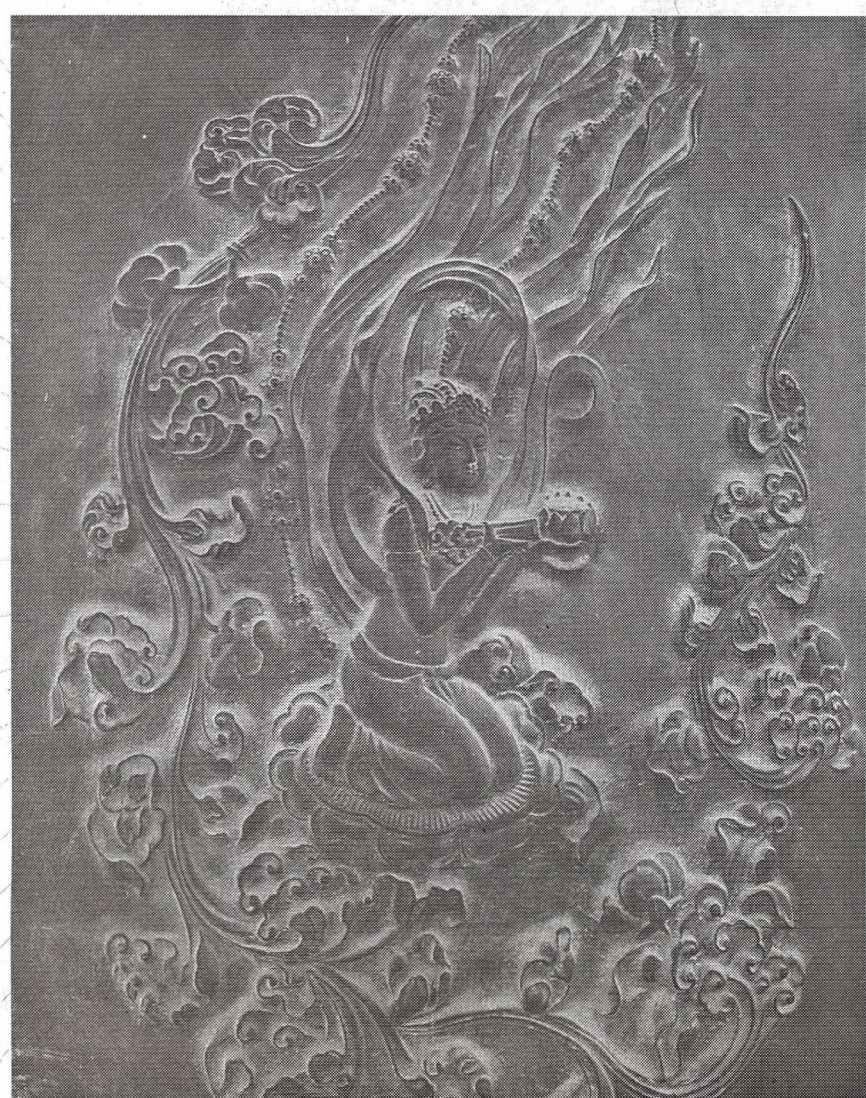
뜻이 굳어져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깊은 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 즐겁고 편안하여라.

(법구경)

Visual Communication Advertising design Editori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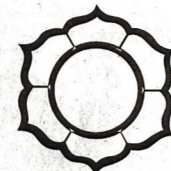
기획 인쇄물 전문

- 광고기획
- 홍보전단
- 카타로그
- 브로슈어
- 리플렛
- 팜플렛
- 사보
- 서적류(양장,무선)
- 다이어리
- 명부(수첩)
- 쇼핑백
- 각종봉투
- 카렌다
- 앨범
- 샘플북
- BOX류
- 행가,행택
- 스티카,라벨
- 청첩장
- 연하장
- 메뉴얼
- 현수막
- 상패,트로피
- 판촉물

기타 일반 인쇄물 및 광고 판촉물 일체

사무실 / 디자인실
 서울·중구 인현동 1가 124-3호 호수빌딩
 TEL : 2277-2900(대), 2277-3639
 FAX : 2277-3668
 H·P : 018-361-9663

공장
 서울·중구 인현동2가 215
 TEL : 2265-5356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ID-dong455667
 PW-455667



동립기획
Orient Communications
 代表 金東雲 (佛名:修正)
 관성사 교도

지상설법

고통은 부처님의 자비요 은총입니다

법 등

(말인사 주교)

어디서 찾아온 고통인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그 몸과 마음으로 받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괴로움과 아픔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나 자신(자아, 自我)에 집착해 있기 때문인데, 자아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버린다면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삶은 더 없을 것이지만 사바세상에 업보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지요.

고통은 인간이 지닌 선택의 능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지은 지난 날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의 쌓임에서 오는 그 결과적 보답(과보)이며, 또한 욕심과 성냄과 미움, 원망 등의 번뇌와, 고개돌려 외면한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역경을 만들어서 받게 된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지요.

몸의 병, 마음의 병, 죽음, 가난, 일의 실패, 애착하는 것과의 이별, 좋은 현실을 잃어버리고 좋지않은 환경과

의 만남, 외로움과 고독함 등이 우리의 고통이며 이러한 고통들은 인간의 사랑, 미움, 증오, 애정, 쾌락, 욕망, 갈망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하고 무인인 모든 것은 다 고통이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이루기 전에는 인간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참된 행복과 성숙

그러면 인생의 시련과 삶의 상처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인간은 지난날 자신이 지은 업의 업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생각하며 참회하고, 원망하거나 증오하고 괴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찾아온 고통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여 잘 참고 기다림으로써 뒷날 부(富)를 얻게 하며, 뛰어난 용모를 갖추게 하며, 큰 힘을 얻게 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며, 기예(技藝)를 이루게 하며, 원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게 한다.

어려움을 당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로 살아간다면 무슨 구함인들 얻지 못하며, 어떤 소원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항상 겨울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겨울 가운데서 봄은 이미 오고 있음을 안다면 인생의 겨울이 그다지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뜻과 눈물의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그녀의 시에서 "나에게 당신의 상처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상처에 대해 말하리라" 했지요.

내 상처가 너의 상처일수 있고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도 한 것이지요. 상처없이 고통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통은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결과적 현상이요 피할 수 없는 진리의 모습이며 아픔이긴 해도 불행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여 그것을 자신의 불행으로 보는 고통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고통은 진리의 한 모습입니다. 고통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것으로 받아들이며 잘 참고 받기 되면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지난 날 지은 죄업의 어두운 그림자에 벗어나게 되어 삶이 더 밝아지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지요.

옛날 어떤 고승은 3생 동안에 받아야 할 고통을 한 생의 마지막 3년 동안에 다 받았다고 하지요. 맨 처음 눈이 멀어져 장님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앓은뱅이가 되어 고통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귀머거리에 병어리가 되었지만 3생동안 태어날 때 마다 받게 될 기나긴 고통들을 한 생의 죽기전 마지막 3년 동안에 차례로 다 받아버리고 그 다음 생은 태어나서 큰 수행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받아야할 같은 고통이라도 바른 믿음과 마음으로 닦고 살면 고통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디 고통을 만나게 되어도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가닥 희망마저 사라지고 길이 끊어진 자리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소생하는 길이 있다고 하지요. 절후경생(絶後更生)이지요.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젊은 날의 꿈이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기 위해 어느 날 전도사 시험을 쳤는데 전도사가 되기엔 부적합하다고 시험관에게 의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지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도 딱 10년 동안만 그렸고 그의 작품은 그 당시 단 두 점만 팔렸다고 합니다. 가난했지요. 그러나 그가 시험에 합격하여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거나, 목사가 될 수 없음에 좌절하여 자포자기했다면 오늘날 천재 화가 고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치유하는 힘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그의 시(기도)에서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 낼 수 있는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않게 하시고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예상하지 못한 행복이 있듯 생각하지 못한 슬픔과 고통이 있지요. 고통

을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바른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고통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진리를 생각하게 하지요.

고통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인간, 그래서 고통은 부처님의 자비요 은총이 되지요.

릴케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의 시원(始原)이 어디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고 했지요.

고통은 행복과 함께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를 채색하여 더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불교에서 자비(慈悲)의 여원은 "함께 상처(고통)를 받는다"는 뜻이라 하지요.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나 누군가가 삶의 상처로 고통스러워 할 때 그것을 불행으로 보는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는 것은 친절이나 인간적 따스함을 넘어 상처받은 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의 뒤안길에서 만나는 행복,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듯 생각하지 못한 기쁨과 행복도 있지요.

귀한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음 시때만두!

진리의 여울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견고한 것도 없으며 결국은 모두 흩어지고 만다. 망상 분별로 하는 일은 속임이 될 뿐이다.

세속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천지와 저 큰 수미산도 결국은 무너질 것인데 이까지 사람 몸 따위이겠느냐. 나는 석 달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니 놀라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법으로 부처를 이룬 것이다.

이미 교법이 갖추어져 있으니 너희들도 부지런히 배워 실행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해탈을 얻도록 하여라. 분별하는 작용이 끝나면 죽지도 않고 다시 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몸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오온의 작용을 끊으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춥고 더우며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 같은 것도 없어진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천신들도 기뻐할 것이다 마음을 조복받아 부드럽고 순하고 스스로 텅 비어야 한다.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도를 얻

는 것도 또한 마음이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귀천이나 축생 혹은 지옥도 만들므로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따라 온갖 법이 일어난다. 마음이 바탕이 되어 뜻하는 것이 행이 되고 행의 하는 일이 명이 되니, 어질고 어리석음이 행에 있고 오래 살고

는 것도 또한 마음이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귀천이나 축생 혹은 지옥도 만들므로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따라 온갖 법이 일어난다. 마음이 바탕이 되어 뜻하는 것이 행이 되고 행의 하는 일이 명이 되니, 어질고 어리석음이 행에 있고 오래 살고

일찍 죽음이 명에 달린 것이다. 대개 의지와 행과 명, 이 세 가지가 서로 관계되어 좋고 나쁜 짓을 하므로 스스로 그 과보를 받는다.

아비가 착하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자식이 대신 받지 못하고, 또 자식이 옳지 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아비가 대신 받지 못한다. 착한 일은 스스로 복을 받고 나쁜 짓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래가 천상 천하에서 높이 공경받는 것도 그 뜻이 승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행동으로 옮겨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에서 휴식과 안락을 얻을 것이니, 잘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조용히 생각하여라. 그러면 곧 나의 깨끗한 법이 오래 머무를 것이며, 세상의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중생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리라."

(장야함 반니원경)

"이미 계에 머물게 되었으면 오온을 잘 거두어 오욕에 들 어가지 않게 하라. 이를테면, 소치는 사람이 회초리를 쥐고 단속함으로써 소가 남의 논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오관도 그 주체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그 마음을 다스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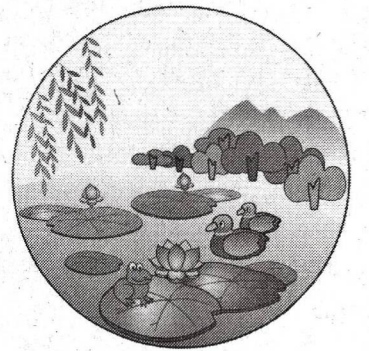
흐트러진 마음은 두렵기가 독사나 맹수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치솟아 일어나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그것은 마치 풀 그릇을 든 사람이 풀만 보고 좋아서 이리저리 날뛰기만 하고 깊은 구멍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그것은 고삐 없는 미친 코끼리나 나무를 만난 원숭이와도 같아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붙들기 어려우니 빨리 꺾어 방일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마음을 놓아 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것을 한곳에 모아 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기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이화경 유괴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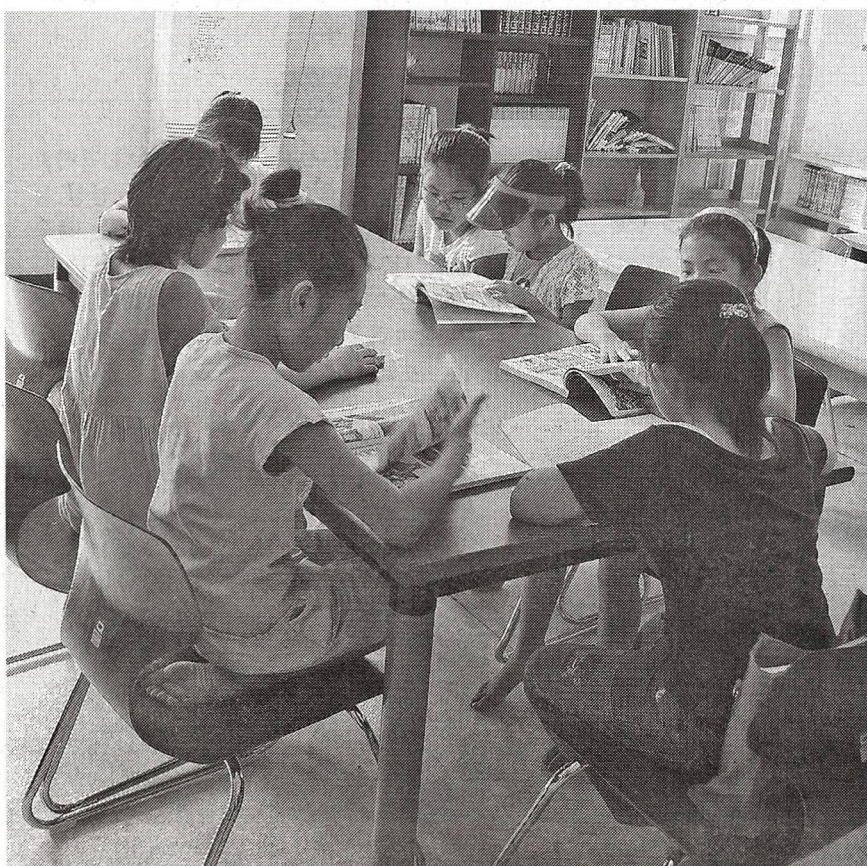
것과 같다. 만약 오관을 제멋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사나운 말과 같아서 단단히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수레에 태운 사람을 구렁에 내동댕이칠 것이다.

도둑의 침해를 받으면 그 침해가 한 생애 그치지지만, 오관의 화는 여러 생애 미치지 그 해독은 매우 무겁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제하여 오관에 따르지 말고, 도둑을 붙들 듯 하여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용 돌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 3시~4시 : 태권도
-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총지문예

습관의 무서움



이동근 동해중 2학년 2반

음악 듣는 것이 언젠부터인가 즐겁게 느껴졌다. 컴퓨터로 듣기도 하지만 MP3로 듣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 신곡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덕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음악을 다

신만의 독창적인 세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먹서 먹해질 우려가 있다. MP3에 정신이 팔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내릴 곳을 놓치고 아니면 길을 걸다가 사람들과 부딪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P3이 작은 기계의 마력에 의해서

귀에는 항상 이어폰이 꽂혀져 있었다. 게다가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고 외출을 할 때도 항상 MP3를 끼고 음악을 들으며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한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나는 MP3를 끼고 학원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자리에 앉아서 주위의 소음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높여 놓고 혼자 음악을 들으며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쳤다. 뒤로 돌아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아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정 그릴 얼굴을 하고 계셨다. 난 바로 MP3를 일시 정지시키고 무슨 일이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는 "학생, 음악 소리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습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일수록 빨리 고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어른들의 말을 컷등으로 넘겨 버린다. 사춘기에 접어든 중고생들은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어른들의 말씀에 반항심이 생기기도 한다.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칠수록 좋은 것이다. 어쩌면 나쁜 습관 자체를 안 만들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습관 하나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나를 돌아봐도 그렇다. 작은 습관, 비록 안 고쳐도 될 습관 같아도 언젠가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습관 하나 바꾸는 것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다. 비만, 동맥경화, 고혈압, 저혈압 등의 경우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하여 발병되는 질병들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다. 잘못된 습관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습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고 하면 좀 우스워 보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그런 것 같다. 자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한 번의 실수로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실수는 대개 습관 때문에 생긴다. 습관에 따라서 운명도 바뀌고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습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습관이 그토록 무섭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습관이 그만큼 고치기 힘들다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칠수록 좋은 것

습관에 따라 질병과 운명 결정

요즘 이것을 외출할 때 꼭 챙기는 게 습관이 되었다.

내가 MP3를 구입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 것으로 기억한다. 직사각형 모양의 약간의 두터운 MP3에다가 나는 무전기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고 그 당시 나는 음악을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하루 종일 MP3만 듣기도 했다. 그러다가 MP3는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다시 등장했다. 시험 공부할 때마다 내

가 너무 크니까 소리 좀 낮춰."순간 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평소 습관대로 주위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이어폰을 끼지 않은 사람들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미약한 음을 듣게 된 것이다.

습관이 그토록 무섭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습관이 그만큼 고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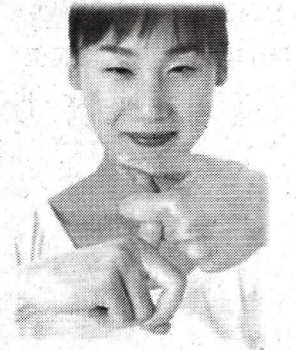
이달의 생활요가

몸풀기 요가

몸풀기 동작은 요가 운동을 수련하기 앞서 경직된 근육들을 이완시켜주고, 반대로 운동 후에 실행하면 자극되었던 신경들의 피로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굳이 요가 운동 전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잠자기 전에 몸풀기 동작을 해주면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잠자리가 되도록 이끌어준다.

손가락 뒤로 넘기기



사진과 같이 한쪽 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반대쪽 손의 다섯 손가락을 손등을 향해 하나씩 차례로 밀어 넘겨준다. 다섯 손가락 모두 뒤쪽 방향으로 밀어주었으면 이번에는 손을 바꾸어 반대쪽 손가락도 풀어준다.

이 동작은 늘 손바닥으로 향해있던 손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는 운동이다. 열 손가락을 모두 풀어주며 3회 반복한다.

손등 늘려주기

한쪽 손으로 반대쪽 손등을 감싸 쥐고 사진과 같이 손목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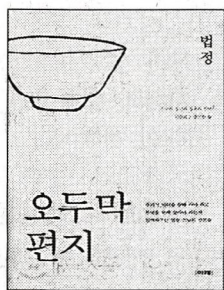
손등이 시원하게 늘어날 정도로 늘려주며, 양손을 번갈아 각각 5회씩 반복한다.



이달의 추천도서

오두막 편지

법정 지음/ 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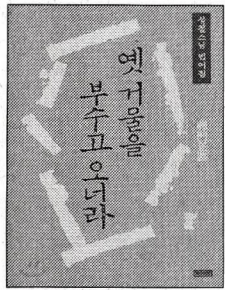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법정 스님의 산문집, 법정 스님은 전기도 들지 않는 강원도 오두막에 살며 개울물을 길어 밥을 하고, 손수 만든 빨감으로 불을 지피고, 그 불로 물을 끓여 차를 달인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쓴 50편의 글에는 풍부한 감수성과 넘치는 패기, 당당한 기개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다.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엄하게 건네지는 편지글들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치유와 위안을 선사한다. 2007년 개정판.

옛거울을 부시고 오나라

성철 지음/ 장경각

성철스님의 법어집을 재출간하면서 첫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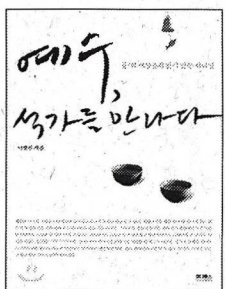
로 [선문정리]를 다시 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성철스님의 원래 문장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채 한자를 괄호 속에 넣고 어휘 풀이와 문장 해석을 각주 형태로 첨가하였으며, 육성으로 남긴 강설을 추가하였다.

또한 성철스님이 인용하신 한문 원전과 평석을 한 묶음으로 반호를 매겨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스님이 직접 찾아 적어놓으신 원문 출처를 모두 옮겨 놓았다.

예수 석가를 만나다

이명권 지음/ 코너투스



예수의 평화와 사랑의 정신은 석가의 평등과 자비 사상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다. 반야심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문구를 담고 있다.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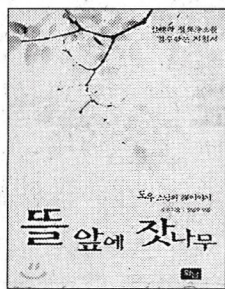
안(慧眼)이 석가가 우주 보는 방식이었다. 우주의 근원적 존재방식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불이(不二) 일원론(一元論)적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다.' 즉, 공이 색과 다르지 않지만, 그리고 그와 반대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다. 존재의 바탕(실체)을 꿰뚫어 보면 공이지만 존재의 현상을 바라보면 색이다. 그런 점에서 바탕과 현상은 다르지 않지만 차별적인 그 무엇이 있다. 그러기에 현실을 넘어선 피안의 열반이 있는 것이다. 그 열반의 자리가 곧 공의 자리다. 그런 점에서 공은 상대적 세계를 넘어선 절대공이다.

절대공의 개념과 쌍벽을 이룬만한 그리스도 교적 개념은 단연 '하나님'이다. 절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공'과 '안식'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고통을 넘어선 '영원한 안식'을 위해 종교는 존재한다. 예수도 이를 추구했고, 석가도 그랬다. 이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는 도상의 나그네로서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와 석가의 방식도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석가의 '비움'은 '공' 사상에서 드러나고 있고, 예수의 '비움'은 '십자가'의 케노시스(kenosis)에서 드러나고 있다. 석가의 '나눔'은 자비와 보살정신에서 잘 드러나 있고 예수의 '나눔'은 죽음(죽)으로써 산다는 부활의 정신 속에 드러나 있다. 예수가 비유로 말하듯이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은 '삶'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를

'내어 줌'으로써 많은 생명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많은 생명의 살아남,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을 위한 '사림'의 모델이 된다.

들 앞에 잣나무

도우 지음/ 방남수 역/ 화남출판사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험적인 일들과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기록된 것이다.

이 책은 불교가 전래한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순서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나라의 이야기마다 특색 있는 불교의 모습을 접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도편에서는 제석천왕이 구두쇠 노지장자에게 감화를 주어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 중국편에 잣나무 화두에 얽힌 거사 장구성(張九成)이 특도한 이야기, 한국편에서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깨닫는 이야기와 신라의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 순교한 이야기, 일본편에서는 도원, 일후, 백은선사 등의 담담하고 무애한 구법행각 이야기 등으로 엮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모집시기 : 수시
▶ 연습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연습장소 : 총지사
▶ 연락처 : 노진숙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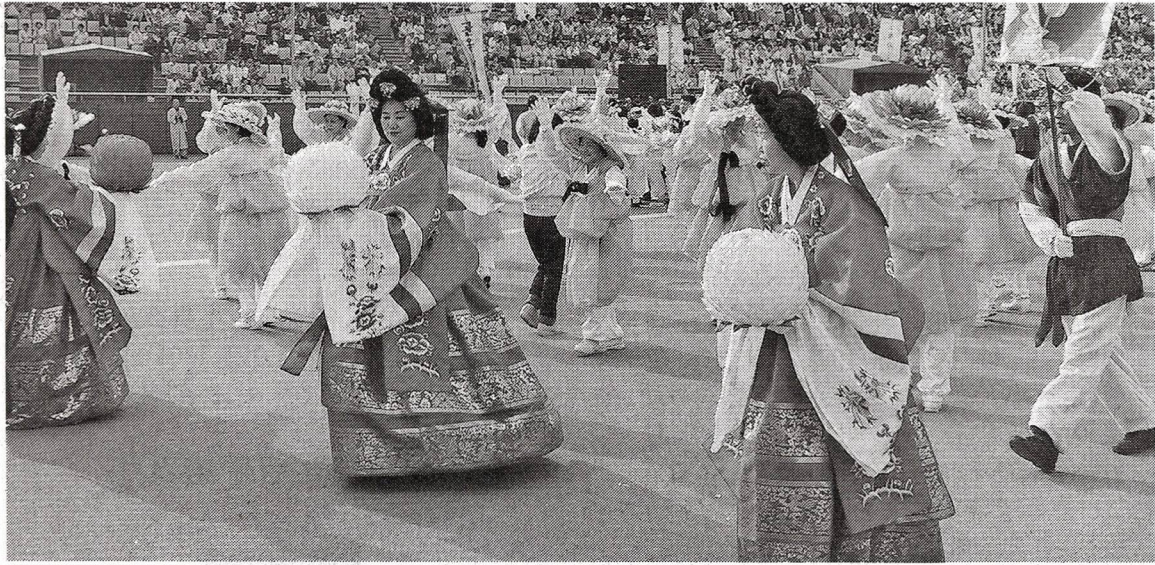
032-545-5602
018-324-5671

※ 교도가정의 경조사에 초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음성공양해 드립니다.



“연등축제, 불자 자긍심 고취 74%”

지우 스님 ‘연등축제 포교효과’ 서 밝혀



연등축제 개막 장면.

연등축제가 불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찰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등 불자들의 신심고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지우 스님은 2006년 12월 석사논문으로 「연등축제의 문화포교 효과성 연구」를 제출했다.

이 논문은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조계사·화계사·불광사·봉은사·영화

사 등 서울 시내 주요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 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연등축제의 포교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들은 「연등축제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연등축제에 참가한 후 신심이 높아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등축제가 도반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찰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응답도 77.3%로 나왔다.

또한 “연등축제가 불교문화 및 불교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3.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4.8%로 나와 전체 78.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연등축제가 사찰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답변이 70.8%가 나온 반면 아니라는 답변은 5.8%에 불과했으며 연등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사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응답도 59.9%나 나왔다.

특히 연등축제에 누구와 함께 참가하느냐는 질문에 “같은 사찰 신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71.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14.4%, “친구나 동료와 함께” 참가하는 경우가 10.6%였다.

연등축제가 사찰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연등축제에 참가를 권유할 생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자 72.5%가 나왔지만 그 중 적극 권하겠다는 응답은 17.2%에 그친 반면 그럴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4.7%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우 스님은 “불자들의 소극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등축제의 참가자들은 주로 제등행렬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등행렬만 참여한다는 응답이 42.1%였으며, 연등축제를 관람한다는 응답이 11.7%,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11.3%, 준비작업부터 참여한다는 응답이 16.2%, 각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18.6%였다.

포교원 관리 규정 제정...자격증 발급

조계종, 어린이법회 지도자 양성 주력

조계종이 본격적인 어린이 법회 지도 교사 양성에 나섰다.

포교원은 지난 1월 24일 2차 포교원 회의를 열고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 법회를 지도해 온 교사들이 종단의 제도 안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 받게 됐다.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어린이 지도사는 연 1회 실시되는 자격고시를 거쳐 선발, 고시를 통과한 이에 한하여 자격증이 발급된다.

조계종은 자격고시 응시자격요건을 탄력 있게 넓혀 법회 지도 인력 확보에도 주안점을 뒀다. 어린이 지도사 고시 응시 자격은 △종단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기관 졸업생 △유치원 정교사나 보육교사 자격 보유자 △동국대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의 교육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중 어린이 포교 활동 경력 1년 이상 △어린이 포교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사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규정 전 대한불교교사대학에서 시행한 어린이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교사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조계종의 이러한 제도적 기틀 마련은 각 일반 사찰의 어린이 법회 지도 교사 대부분이 봉사형식으로 법회를 진행, 지속적인 법회 유지가 어려운 현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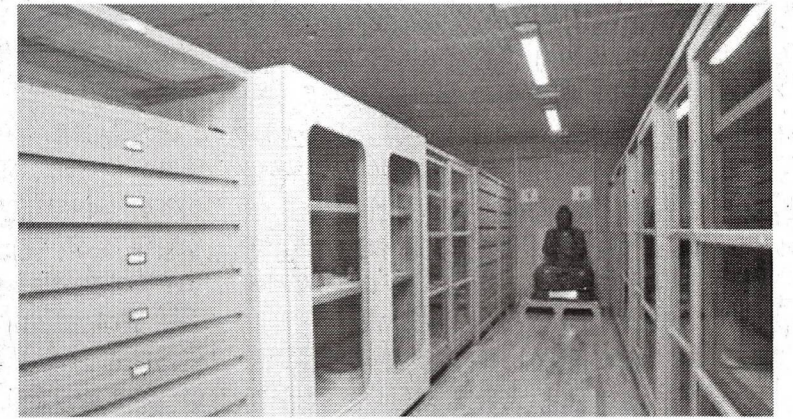
포교원은 “어린이 지도사증 발급을 통해 종단에서 체계적인 포교 전문 인력을 데이터화 하고 조직망을 구축해 각 사찰에 투입, 어린이 법회 개설과 지도를 지원할 것”이라며 “2009년 내 1공할 1어린이 집 운영 등의 강제 규정이 제정되는 등 물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오는 이달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극회의장에서 1회 어린이 지도사 자격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 3월 개관

5월 24일까지 ‘한국불교 1700년 특별전’



불교중앙박물관 내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유물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오는 3월 26일 개관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 24일 박물관 시설설명회를 열고 “출가제일인 3월 26일 개관특별전 개막식에 이어 27일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차지하는 불교중앙박물관은 크게 전시시설과 수장시설, 학예연구실과 보존처리실로 구성된다.

지하 1층은 약 360평 규모의 전시장으로 꾸며지며, 세 개의 상설전시실과 시청각실이 들어선다.

전시실에는 성보 외에도 미디어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불교 문화재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할 수 있다.

입구에는 박물관 전시유물과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왔다. 이 장비는 기존의 터치스크린 방식과는 달리 가리키는 동작만으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부처님 생애나 산사의 하루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공하고, 24교구

의 문화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설비도 갖췄다.

지하 3층에는 수장고와 보존처리실이 각각 마련된다. 황운·함습시설이 갖춰진 수장고는 약 150평 규모이며, 금속류와 약화·지류·목조류 및 석조·기와류 등을 별도 수장할 수 있도록 3개 시대로 나뉘어 있다.

또 보존처리실에서는 문화재 보존처리를 전공한 학예사가 상근해 불화 및 지류에 대한 보존처리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뮤지엄샵과 다실을 마련해 불교문화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사찰음식과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했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개관에 맞춰 삼귀의에 기초한 시리즈 전시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3월 26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한국불교 1700년 삼보특별전 I-佛(Buddha)’란 주제로 열리는 개관특별전에는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해 100여점이 전시된다. 이어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법(法)과 승(僧)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종풍진작·전법진흥에 총력 기울일 것”

조계종 지관스님 7대 사업 등 발표



지관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2007년 한 해 동안 △종풍진작 △대중 원용 살림회복 △전법과 복지 진흥 △수행종풍의 사회화 △한국불교의 세계화 △남북불교 협력사업 △한국불교종중인프라 구축 등 7대 사업에 매진할 계획

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지관스님이 천명한 조계종의 2007년 20대 핵심사업은 △사부대중의 결제로 포살·자자 정례화 △종장회의 설치와 삼장해제 살림 정례화 △불암사 결사 60주년 기념사업 시행 △수행진작을 위한 국가법령 제도 개선 △득도이후 대중승가결제 및 소임의무화 제도 추진 △승가대중 노후복지 분산위주 제도화 △종무행정 교구이양 △종단 자정가능 향상 방안 추진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저출산 고령화 불교 대응방안 추진 △선도시 거점 전법도량 건립 추진 △한국불교전통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간화선 대중화사업 계속 추진 △조계사 국제간화선 센터 건립 추진 △한국전통사상서 영역사업 추진 △재외한민족거주지역 전법도량 건립 추진 △스리랑카복지타운 준공 및 남방비구니승가복원 지원 △신계사 복원불사 완공·후속사업 계획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및 특별전시회 △전법회관 및 문화관 건립 등이다.

‘꽃길과 함께하는 전기 선(禪)...’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올 봄 전국서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제주에서 임진각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꽃길과 함께하는 전기선(禪) 수행을 실시한다고 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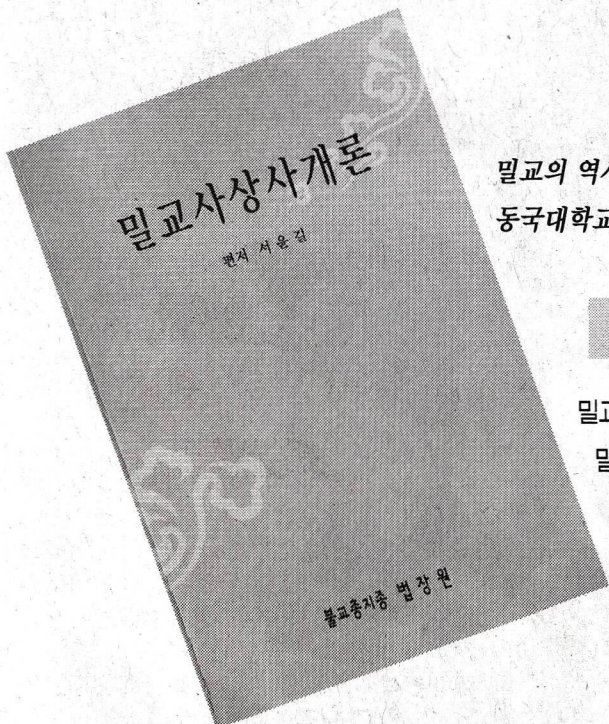
불교수행법의 대중화와 지역 불교조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펼쳐지는 꽃길과 함께하는 전기선(禪) 수행은 ‘성찰’ ‘화합’ ‘정진’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다음달 18일 제주 카멜리아 힐, 24일 부산 UN모지, 25일 진해 군항제 장소, 31일 광주

무각사, 4월 1일 울산 태화공원, 7일 대구 두류공원, 8일 전주 수목원, 14일 대전 한밭수목원, 15일 수원 화성, 21일 강릉, 22일 서울 하늘공원, 29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

중앙신도회는 또 조계종 중앙신도회관 건립과 관련, 현재 설계사무소를 선정해 기본 설계안을 심의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까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711.95평 규모로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의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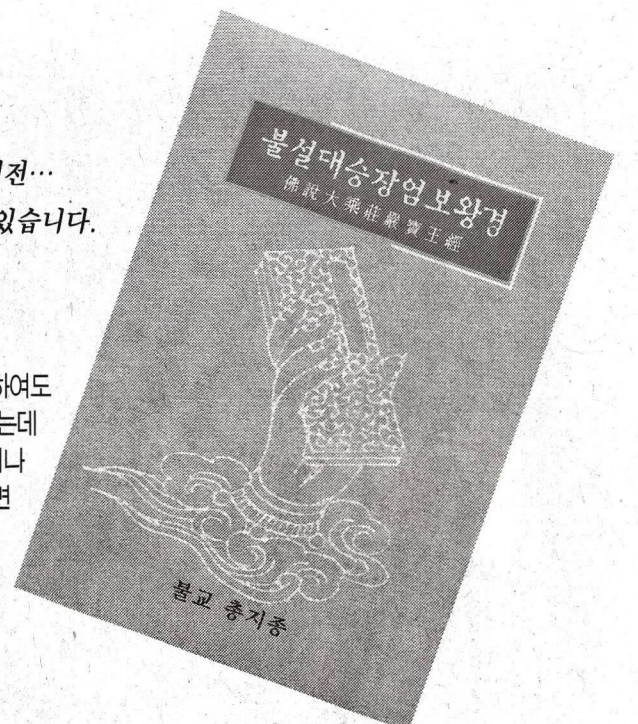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훤>의 유래와 공덕을 설명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중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남도 사찰군 세계유산 추진”

유홍준 청장 기관 총무원장 만나 밝혀



유홍준 문화재청장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화엄사, 천은사 등 지리산과 송광사, 선암사 등 조계산에 위치한 남도의 산사들을 하나로 묶은 '지리산-조계산 산사 문화유산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요즘 문화재관람료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제 잘못이다”라며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이나 남도의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문화재관람료 문제

도 지금과 달리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날 “일본의 교토는 오래된 사찰들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오래된 역사기념물들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며 “산이 중요한 만큼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해온 사찰들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문화재청은 지난해 초부터 지리산과 남도의 사찰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리산과 조계산 지역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하나로 묶을 때 등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산과 조계산을 중심으로 남도에 위치한 주요 사찰들을 포괄하는 ‘남도 사찰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초 이러한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맡은 기관이 연구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리산 사찰군’ 혹은 ‘남도 사찰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들어가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일단 잠정목록에 등록한 후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찰음식 연구·계승 대중화”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 출범

1700년의 전통이 담긴 사찰음식을 계승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결집한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회장 선재 스님)가 1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사찰음식이 트랜스지방·비만·아토피 등 현대 질병에 대한 치유책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교계가 앞장서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를 출범해 그 의의가 더 깊다.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는 적문·홍승·혜성 스님 등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 15명이 모여 △연구 △교육 △대회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사업은 경전에 근거한 사찰음식 자료 취합·표준교재 편찬·스님 및 재가자를 상대로 한 교육사업·대외 및 홍보사업 등이다.

사찰음식의 계승·보급·연구를 통해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교의 정신과 문화를 홍보한다는 취지다.

이 날 법어를 한 청화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존경과 사랑으로 만들고 베푸는 음식이 가장 훌륭한 먹거리”라며 “사찰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의 앞길을 치하했다.

선재 스님은 “출법식을 계기로 사찰음식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는 등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통사찰음식보존회는 앞으로 회원수를 늘리고 불교의 정신과 문화를 ‘사찰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널리 포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청화·탁연·동봉·성해·지안 스님을 비롯해 문화관광부 김장실 실장, 탈렌트 강부자, 가수 장미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조용길 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찰음식보존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찰음식 연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지난해 8월 조계종 주최로 열린 ‘사찰음식의 우수성 및 대중화 방안’ 주제 세미나를 계기로 사찰음식연구가 스님들이 ‘사찰음식문화협의체’라는 준비모임을 결성한 것이 그 첫 걸음이 됐다. 9월 15일 모임에서 단체 이름을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로 정하고 회장에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부회장에 홍승 스님(사찰음식연구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정식 발족했다. 9월 말에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韓) 브랜드 박람회’에 참가해 사찰음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마이 리더스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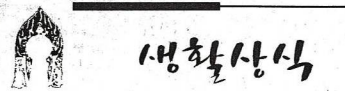
제2기 도반 모집

(사)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는 불교계 최초 통합리더십 과정 ‘마이 리더스 클럽’ 제2기 도반을 모집한다.

‘3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을 주제로 불교와 리더십, 경영을 접목한 이 프로그램은 내면의 성찰과 나눔의 정신을 기반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시대언어로 재조명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재가 불교 지도자들의 안목과 능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기 과정은 다음달 8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만해 NGO 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총 14회 진행된다.

(02)2278-1087



▶돈가스를 맛있게 간편하게

돈가스용 튀김 옷에 밀가루와 계란을 넣는 대신 마요네즈를 고기 표면에 바른다. 빵가루를 뿌려 튀기지만 하면 감칠맛나는 돈가스가 완성된다.

도시락 용이나 간단한 안주거리 등 적은 양을 만들 때 편하다.

▶맛있는 튀김 만들기

튀김을 좀 더 바삭바삭하게 튀기는 방법은 밀가루와 계란을 섞은 다음 썰려드유 한 큰 술을 첨가하면 된다. 그런 다음 재료를 넣고 빵가루를 묻혀 튀기면 바삭바삭한 튀김이 완성된다.

▶대파 쉽게 다지는 방법

대파를 빨리 곱게 다지는 방법이 있다.

1. 대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 정도 깊이까지 비스듬히 칼집을 넣는다.

2.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비스듬히 칼집을 넣는다.

3. 대파 끝에서부터 썰어 나가면 순식간에 다져진다.

▶양상추를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쉽게 시드는 양상추는 심을 도려낸 자리에 물에 적신 키친 타월을 넣은 다음, 비닐 봉지에 넣어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서 먹을 때까지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편리하게 보관하기

무우 등의 뿌리 채소와 시금치 등의 잎 채소는 우유 팩을 이용하여 마치 밭에 심은 것처럼 뿌리가 아래 쪽으로 향하게 세워서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 채소 실에 칸막이가 생겨 남아 있는 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채소를 꺼내기도 쉬워 편리하다.

▶양파를 편하게 손질하기

양파를 손질할 때 눈물이 안나게 하려면, 양파를 손질하기 전에 물에 10 분간 담가두면 된다. 양파를 다듬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은 양파에 휘발성 최루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파를 물에 담가 두면 이 최루성 물질을 물에 용해시켜 눈물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진각종, 진각복지센터 세운다

서울 하월곡동에 12월 완공계획



◇진각종 복지재단 경로 행사 장면.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회정)이 올해 진각종 창종 60주년과 내년 복지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각복지센터 건립’ ‘진각보기 60 프로젝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진각복지재단은 1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사업지표를 ‘모두가 함께하는 등글고 밝은 복지세상 만들기’로 삼은 진각복지재단은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진각복지 ▶종단·법인·시설이 함께하는 진각복지 ▶문화·교육·연구로 차별화된 진각복지라는 세 가지 큰 사업 줄기를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진각복지센터’ 건립. 현재 진각복지재단이 위치

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2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고 노인 전문 요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 봄 착공해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센터 1층에는 ‘진각혜민소(가칭)’를 마련해 저소득 가정 지원과 무료법률상담 등의 사업을 펼친다. ‘혜민소’는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 구휼을 담당했던 ‘혜민서(惠民署)’의 정신을 잇기 위해 마련한 부서다. 진각복지센터 건립에는 국비 약 15억원, 시비 약 15억원여 그리고 진각종 자체 재원 등 총 34억원이 투자된다.

4월 중으로는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 포항시 남구의 ‘포항실비노인요양원’을 개원한다. 60여 명이 이용 가능

한 이 요양원은 ‘위덕 어르신 마을’이란 이름으로 위덕대 산하 협력실천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 받아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양육모그룹홈)도 이르면 5월 문을 연다. 이곳에 입주한 미혼모 12명은 2년 동안 자녀의 출산과 양육, 재취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진각복지 60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창종 60주년을 기념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육바라밀’을 모토로, 신교도 대상으로 자원봉사 60시간 실천하기, 종립학교 불교학생회를 통한 독거노인 60명 ‘한가족 맺어주기’, 신규 시설 개원 등을 통한 60명 일자리 창출, 산하 13개 지부와 함께 펼치는 60가정 결연 맺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복지재단 직원을 중심으로 생명나눔운동 60명 동참, 종단 성직자 60명의 노인유사체험 및 자원봉사 등도 마련된다.

‘희망한국’ 주제 정책포럼 개최

불교인재개발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희망한국’을 주제로 2007년 첫 정책포럼을 열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정책포럼은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초청강사로 ‘희망한국을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불교인재개발원의 정책포럼은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돼 오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이번 2007년도 첫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올 한해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정책포럼을 총 15회 계획하고 있다. 이달 22일에 권영근 농어촌경제연구소장이 ‘농업위기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이 강사로 나서 ‘경제인이 바라 본 불교’, ‘불교유아교육과 숲 유치원’, ‘불교의 경제관과 신행생활’ 등 현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주제에 대해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
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
시겠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통사찰 문화탐방

마음에 물 떨어지는 소리 듣다 - 운길산 수종사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인 두 물머리, 양수리(兩水理)를 지나서 가 다보면 운길산 자락에 있는 수종사(水鍾寺) 입구가 나타난다.

운길산의 꼬불꼬불한 등산로를 따라 2.2km, 걸어서 40여분 거리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를 수도 있었지만 경사가 급하고 가파른 편인데다 도로 폭이 좁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 일행은 산중턱에 차를 주차시키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목적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으나 주변에 늘어선 나무를 벗 삼아 여러 가지 얘기꽃을 피우면서 걸다보니 어느새 몸과 마음이 대자연과 합일되는 느낌이 들었다. 편안함과 여유로움 그 자체였다.

소나무사이로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 하얀 눈이 아직 남아 있고 그사이로 떨어진 낙엽들의 소리는 정겨울 뿐이다.

나는 평소 산을 탈 때면 아무런 생

세에 찌들고, 세상의 온갖 매연과 먼지를 뒤집어쓴 마음의 때를 여기서 말끔히 씻어 버리라는 뜻이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되었다. 눈앞에 문이 보였다.

일주문이라 생각했는데 불이문이란 다. 조금 더 올라가니 석불상이 나온다. 세운지는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였다.

수종사로 들어서자마자 스님들께서 정성스럽게 받아놓은 물통에서 한 모금 물을 축이는 순간 감로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의 바위굴은 막혀 있었고 종소리 같이 들려오던 물방울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기에 조금 아쉬웠다. 발길을 돌려 경내로 옮겨 여기 저기 둘러보았다.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응진전, 요사채가 전부인 아담한 사찰이다.

대웅전 옆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아 가면 수령 오백년이 훨씬 넘는 은행



운길산 산미루에 고즈넉히 들어 앉은 수종사 대웅보전.

종소리가 들려 잠을 깬 왕이 부근을 조사하게 하자, 뜻밖에도 바위굴이 있고, 굴속에는 18나한(羅漢)이 있었는데, 굴속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나왔으므로, 이곳에 절을 짓고 수종사라고 하였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또한 수종사 나한전에 18나한이 모셔있는 도량이기에도 더욱 뜻 깊은 사찰이기도 하다.

수종사의 삼장현은 창가에 양반자세로 앉아 설경과 양수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찻집이다. 한반도 다도 문화의 시조 초의선사와 그를 흠모했던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세 사람이 이곳 수종사 샘물로 차를 즐겼다는 한편으로는 차 문화에 대한 수종사만의 자부심이 물씬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 일행들도 작은 인연의 깊이를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다도의 기법을 몇 번 보기는 했어도 늘 불안하고 어색하기만 하다.

서양식 커피 한잔은 어떻게 마시건 어떤 잔에 마시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전통 다도는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나마 팽주 보살님께서 살포 주셨기에 따뜻한 차한잔을 마실 수가 있었다.

1200여 년 전 당나라의 승려 조주 중심은 참선하러는 승려들에게 '끼다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라는 말로 참선의 길을 열어 주었다. 백마디 말보다 차나 마시며 스스로 정신을 맑게 하며 정진하라는 뜻 같은데, 촌각을 다투는 시대의 중생이 어

찌 그 깊은 뜻을 헤아릴고, 돌아오는 길에 다산 정약용 유적지에 잠시 들렀는데 마침 휴관이라 아쉬운 여운으로 남았다.

수종사는 "어떤 사물이든 겉모양보다는 속을 살펴라.

사물이란 겉모양이 전부는 아니다. 언제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물의 알맹이를 보여 줄 때 실망하는 법이다.

속임수는 겉모양이 매우 번지르하다. 그래서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속임수에 쉽게 빠진다"는 글이 참 어울리는 사찰인것 같다.

— 각도반 이야기

수종사 대웅보전에서 비로자나불을 뵈오니 수종사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 경내에 조선 초기에 세조가 심었다

는 525년 된 은행나무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지며 한번 더 나를 돌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대법신

꽤나 가파르다고 느껴지는 산길을 따라 30여분을 올라가니 소박하고 허름하게 보이는 수종사 절의 옆모습이 보인다.

대웅전에서 올려퍼지는 스님의 독경소리를 들으며 안마당에 올라서서 아래를 굽어보니, '아' 하는 단음이라도 모르게 새어 나왔다.

- 심일화

수종사라고 이름을 짓게 된내력을 알수 있었고, 차마시는 예법을 공부하였다.

수종사를 안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다.

- 시공

최해선(총지사 교도)



창건설화와 관련깊은 나한전.



각 없이 앞만 보면서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힘이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뒤쪽 안개가 약간 끼어 있는 사이로 팔당호, 양수대교, 양수교, 북한강 철교 등 일련의 다리 시리즈와 북한강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보이는데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그렇게 주변 경관과 갖가지 이야기에 나 자신도 있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어디서부터인가 청명한 목탁소리가 산자락을 휘돌아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다. 속

나무가 우뚝 서있다. 조선 7대 세조 임금께서 수종사를 중창할 당시에 기념식으로 심었던 나무라고 한다.

북한강 건너의 청계산, 중미산 일대 봉우리들도 파도치듯 꿈틀대며 다가오는 곳이 수종사 마당이다. 이런 풍경에 반한 조선시대 전기의 유명한 학자 서거정은 수종사를 일컬어 동방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사찰이라고 격찬했다고 한다.

수종사는 1458년(세조 4) 세조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금강산(金剛山) 구경을 다녀오다가, 이수두(二水頭: 兩水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 깊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연 등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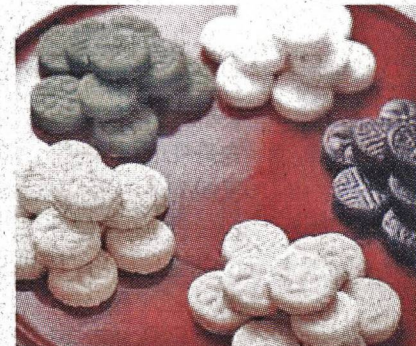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등 공식 행사에 사용할 총지종의 특색있는 연등 제작을 위해 총지종 교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종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통양식의 참신한 연등을 디자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작에 대해 소정의 공모료를 드리겠습니다.

- 대상 : 0명
- 금상 : 0명
- 은상 : 0명
- 동상 : 0명
- 접수 마감 : 총기36년(불기2551년) 2월 28일

보내주실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번지 불교총지종 통리원
연락처 : 02-552-1080~3

이달의 사찰음식(14)

▶다식



재료

송화가루 1컵, 콩가루 1컵, 흑임자가루 1컵, 서여(마)가루 1컵, 녹말가루 1컵, 설탕 1컵, 물 1컵, 꿀 1컵, 오미자물 2큰술, 참기름 2큰술

만드는 법

① 검은깨는 씻어서 타지 않게 볶아 가루를 내어 체에 친다.

② 콩은 씻어 물기를 뺀 다음 약한 불에서 서서히 볶아 절구에 빵아 곱질을 벗겨 버리고 알맹이를 절구에 다시 빵아 고운 체에 내린다.

③ 녹두는 곱게 갈아 외올베에 걸러 뽀얀 물을 짜내어 앙금을 가라앉혔다가 웃물은 따라내고 말린 가루를 빵아서 고운 체로 친다.

④ 서여가루는 파는 곳에서 가루로 만들어 준다.

⑤ 송화가루는 파는 것을 사서 쓰면 좋다.

⑥ 오미자는 씻어서 하루 전에 물을 부어 진하게 우려내고 걸러 놓는다.

⑦ 설탕과 물을 넣고 끓이다가 반으로 줄면 꿀을 넣어 식힌다.

⑧ 흑임자가루는 서로 잘 붙지 않으므로 찹쌀에 살짝 쪄면 색이 검어지고 끈기가 생기며 까끄러운 맛도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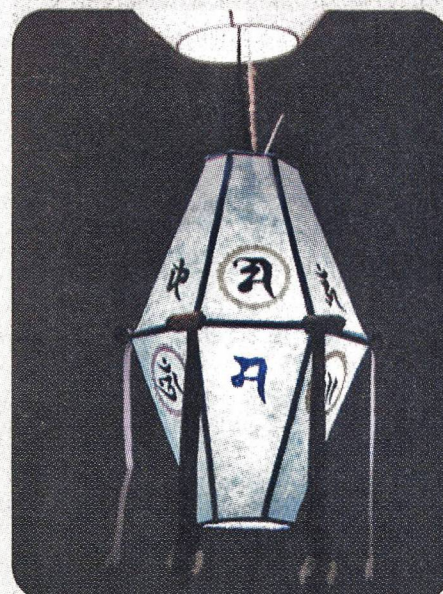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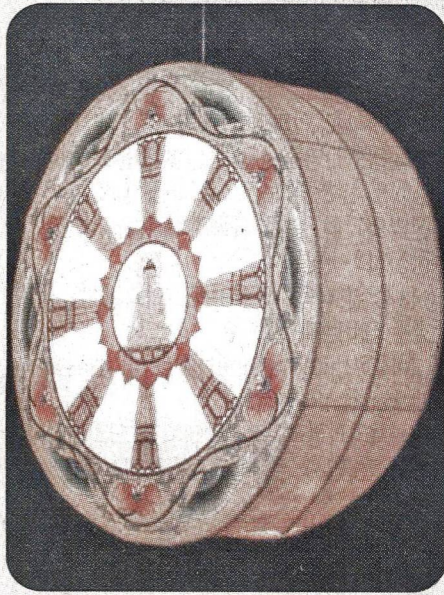
▶ 흑임자가루에 집청꿀을 3큰술 넣고 기름이 나와 반질하게 될 때까지 쳐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 밤불만하게 때어 다식판에 똑꼭 눌러 박아낸다.

▶ 송화가루에 집청꿀을 4큰술 넣고 고루 섞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 다식판에 똑꼭 눌러서 박아낸다.

▶ 콩가루에 집청꿀을 4큰술 넣고 고루 섞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 다식판에 똑꼭 눌러서 박아낸다.

▶ 녹말가루에 오미자물 2큰술을 넣고 집청꿀 2큰술을 넣어 고루 섞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 다식판에 똑꼭 눌러서 박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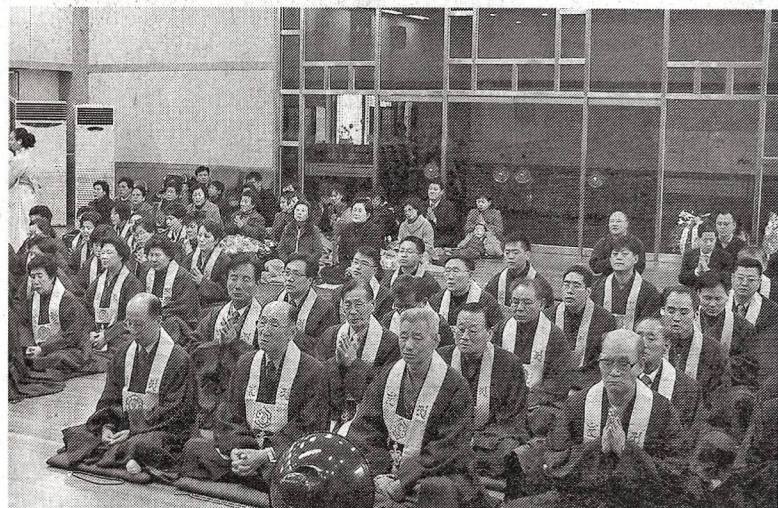
▶ 서여가루에 집청꿀을 4큰술 넣고 고루 섞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 다식판에 똑꼭 눌러서 박아낸다.



신행제험 37

“불이(不二)사상으로 실천불교 구현”

신년하례법회 및 스승 퇴임식 봉행



◇총지사 정해년 신년하례법회

불교총지종은 1월 25일 서울 총지사서 정해년 신년하례법회와 퇴임스승 퇴임식을 봉행했다. 효강 종령예하와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원정기념관 하례, 효강 종령 및 승단 하례, 종령 신년법어, 퇴임스승 퇴임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현대는 과학문명은 발달했지만 인간성 상실로 인한 극한대립이 만연해 있는 시대”라며 “이의 치유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불이(不二)사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교했다. 또 종령예하는 또 “관념적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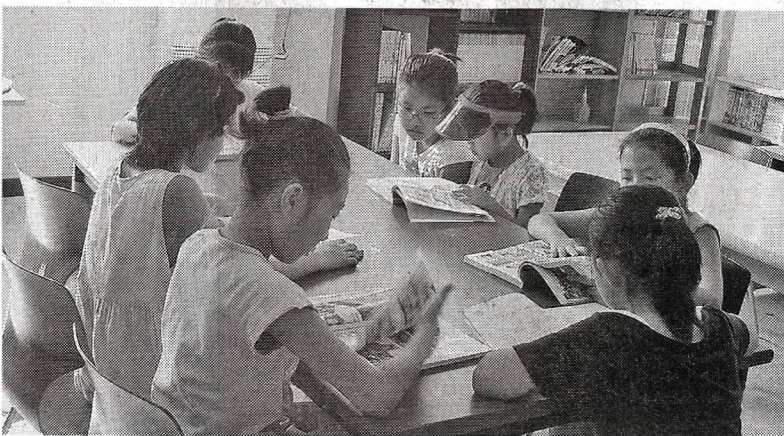
고 실천하는 불교 구현을 위해 승직과 교도들이 더욱 분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종조 탄신 100주년과 창종 35주년 등 종단의 중요한 일들이 있는 해입니다. 종단과 종도모두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원만하게 수행해 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령예하는 이와함께 “올 한 승단의 발전과 교도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합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될 때 불가사의 한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축원했다.

신년하례법회 직후 시각화, 법수원, 해정 스승 퇴임식과 은가사

수여식이 열렸다. 만족하며, 후배 스승님들은 종생 시각화 스승은 퇴임사에서 “경생 교화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바라밀 공부방 운영비 전액 정부 보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총지종 부산 정각사 부설 지역 아동센터인 바라밀 공부방이 내달 2월부터 정부로부터 매월 운영비 전액을 보조 받게 되어 명실상부한 부산지역 아동센터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센터장도 사회복지 전문가인 지정 정사가 맡게 되어 바라밀 공부방의 시설을 개조하여 아동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다양한 학습과 정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학습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바라밀 공부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그동안 바라밀 공

부방은 지역의 저소득가정과 맞벌이 부부, 정서적 결함이 존재한 달 2월부터 정부로부터 매월 운영비 전액을 보조 받게 되어 명실상부한 부산지역 아동센터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센터장도 사회복지 전문가인 지정 정사가 맡게 되어 바라밀 공부방의 시설을 개조하여 아동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다양한 학습과 정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학습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바라밀 공부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그동안 바라밀 공

새해 불공을 회향하며



김은숙 보살

〈서울경인 지회장, 총지사 신정회 회장〉

어김없이 찾아온 2007년 정해년 정월을 맞으며 법신 부처님의 질서는 영원하며 그 속에서 사는 우리가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해년 새해불공을 다른 해보다 더욱 용맹을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세속의 다른 일들은 뒤로 미루고 스승님과 신도들과 눈빛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똑같구

못했던 환희한 마음으로 즐겁게 불공을 마쳤습니다. 불공기간 동안 “왜 이렇게? 무얼까?” 하는 생각이 계속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다행을 앞날에 대한 결과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49일 동안 열심히 불공을 하였지만 막내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 장래를 보고 밀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순간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는 저마다 자신이 선택해야 할 삶의 과제이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지라도 자기 자신답게 열심히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시대는 자신의 이익과 안락만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아만과 아집으로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모든 이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잘 난 척

승단과 신도 화합의 장...

나 하는 말없는 약속으로 용맹정진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흐르는 물처럼 세월의 물결따라 주어진 상황속에서 순응하고 주어진 운명에 복종하면서 희생이 따르는 데로 자신을 내 맡겨서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할 줄 모른다.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고행으로 나와 내 가족, 나와 인연된 모든 이에게 행복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를, 살아 있는 날 동안 필요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산사를 찾아 다녔습니다. 바쁜 생활로 불교를 깊이 공부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으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어떤 때는 육체적 체력도 떨어지고, 참기 힘든 고행의 시절이 있었습니

다. 이러한 고행의 시절을 극복하고 나니 부처님은 저의 뜻을 다 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크게 이루어 호화로운 삶도, 큰 것을 잃은 슬픔과 아픔도, 어떤 시련에도 버틸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행하는 저를 가련하게 생각 하셨는지 눈에 보이는 복보다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곳, 마음 공부하고 실천하는 생활불교인 총지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여년 전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겠다는 집념으로 정각사에 다니고 있는 친한 보살님께 이끌려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정각사에서 49일을 정해 불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49일동안 한 번도 불공시간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대선배 보살님과 똑같은 정진을 했습니다. 49일 불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좋은 일에도 한번도 느껴보지

뵈며 사는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와 행복해 질 수 있는 가슴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재산과 권력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받들어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서로 믿고 도와가며 옹고 바른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인과법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복을 지어 복과를, 선을 지어 선과를,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총지사에서는 새해 불공기간동안 승단과 신도가 한 사람이라도 퇴전하지 않도록 스승님들이 앞장서서 정진을 하였습니다.

스승과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서로 위로하고 도우려는 부처님 세상에서 힘든 불공도 승단과 신도간의 화합으로 화기애애하게 천도불공과 7시간 정진까지 회향을 잘 했습니다. 또 새벽 방생을 통해 모두 한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모든 일에 임하면 생명도 연장 시킬 수 있고 안되는 일이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모두 “나의 부처님이요, 스승이다”라는 것을 정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총지종 종령님 이하 스승님들도 건강과 법운운창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총지종 전국 신도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총지종 승단과 신도간 한마음으로 한사람이라도 퇴전됨이 없도록 정진합시다.

만다라 세상

어떤 주례사

며칠 전 한 친지가 느닷없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나더러 주례를 서달라고 했다. 유감스럽지만 내게는 ‘주례 면허증’이 없어 해 줄 수 없다고 사양했다. 나는 내 생애에서 단 한 번 처음이면서 마지막인 주례를 3년 전 6월 어느 날 한 적이 있다. 그날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나는 오늘 일찍이 안하던 짓을 하게 됐다. 20년 전에 지나가는 말로 대꾸한 말뱃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만이 책임을 질 줄 안다.

오늘 짝을 이루는 두 사람도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서겠다’고 했으니(청첩장에 박힌 그들의 말이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무릇 인간 관계는 신의와 예절로써 맺어진다.

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그 신의와 예절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만난 인연을 늘 고맙게 생각하라. 60억 인구이니 30억대 1의 만남이다. 서로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집안의 기구처럼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

각자 자기 식대로 살아오던 사람들과 한 집안에서 살아가려면 끝없는 인내가 받쳐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맞은편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면 이해와 사랑의 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났을 때라도 말을 함부로 쏟아부리지 말라. 말은 업이 되고 씨가 되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결코 막말을 하지 말라. 둘 사이에 금이 간다. 누가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했

는가. 싸우고 나면 마음에 금이 간다. 명심하라. 참는 것이 곧 덕이라는 옛말을 잊지 말라.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누구를 물은 것 없이 신속 정확하게 숙물이 되고 만다.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으면 대화가 단절된다. 대화가 끊어지면 맹목적인 열기도 어느덧 식고 차디찬 의무만 남는다.

삶의 동반자로서 원활한 대화의 지속을 위해, 부모님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숙제를 내주겠다.

숙제 하나, 한 달에 신문집 2권과 시집 1권을 밖에서 빌리지 않고 사서 읽는다. 신문집은 신랑신부가 따로 한 권씩 골라서 바뀌며 읽고 시집은 두 사람이 함께 선택해서 하루 한 차례씩 적당한 시간에 번갈아가며 낭송한다.

가슴에 녹이 슬면 삶의 리듬을

잃는다. 시를 낭송함으로써 항상 따뜻한 가슴을 지닐 수 있다. 사는 일이 곧 시가 되어야 한다.

1년이면 36권의 신문집과 시집이 집안에 들어온다. 이와 같이 해서 쌓인 책들은 이 다음 자식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의 자취로, 정신의 유산으로 물려주라.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질 것이다.

숙제 둘, 될 수 있는 한 집안에서 쓰레기를 덜 만들도록 하라. 분에 넘치는 소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악덕이다.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예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 광고에 속지 말고 충동구매를 극복하라. 가진 것이 많을수록 빼앗기는 것 또한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적게 가지고 도 멋지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날은 두 사람 다 숙제를 이행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뒤 소식은 알 수 없다. 숙제의 이행 여부를 이 다음 삶의 종점에서 그들의 내신성으로 반영될 것이다.

-법정 스님

치탈도첩 광고

법성(김종학), 정일혜(신숙명)는 총지종 승직자로서 승직법 제104조(공금 유용, 명령불복종 등)에 저촉되었기에 사감원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총기 36년 1월 18일자로 치탈도첩 한다.

불교총지종 사감원장

“수행인은 하심(下心)하는 마음돼야”

50여년을 한결같이 진언수행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수행자 가족이 있다. 서울 행촌동 관성사 현정원(이위재, 82) 보살 가족. 남편 이신 우천(김호면, 82) 각자님도 역시 40여년 가까이 수행을 해오며 인생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도반으로 같은 길을 걸어 오고 있다. 이들 내외는 대구 남산동 진각종 심인당을 시작으로 서울 왕십리 심인당, 월곡동 등의 사원에서 수행했다. 이후 총지종 창종 초창기 중앙동, 서대문, 등지의 서원당을 거쳐 현재 관성사 교도로 수행해 오고 있다. 총지종 역사의 산 증인인 셈이다. 대를 이어 장녀인 길상화(김현옥, 57) 보살도 같은 절에 다니며 부모님을 모시며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영등포 맥을 방문하기로 한 날, 팔순의 노인분들은 조금은 긴장된 얼굴로 맞이하며 “마치 오랜 동안 헤어져 있다가 보는 동기간 처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왔다. 첫 대면에서부터 벌써 오랜 기간 수행해 온 모습이 역력했다. 자신들을 남부럽지 않게 성장시

는 생각도 들었다. 현정원 보살을 이때부터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동안 사는 데 바빠 잊고 있었던 마음자리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로 매달렸다.

“젊을 적엔 7정진이 아니라 그 이상 정진을 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 때의 초발심이 지금까지 수행하도록 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정원 보살과 우천 각자는 여든이 넘는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불공한다. 보통은 염주를 100여회 돌리는데 몸이 안 좋을 때엔 49회는 꼭 한다고 한다. 지난 새해 불공 때에도 하루 종일 절에서 보살만큼 정진력이 대단하다. 회향일 철야 7정진을 다 마치진 못했다며 면구스럽다는 노보살과 그를 걱정하는 딸의 모습이 다정해 보인다.

“하루 불공이나 회사를 안하게 되면 종일 마음이 걸려요. 그러니 자연 몸도 편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으로 몸을 유지하듯 기도와 불공으로 우리 마음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인 우천 각자님은 1985년도 관성사 신정 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총지종



을 때 여러 반찬들을 골고루 먹는 것과 같이 수행도 마찬가지로 하시며 독려했습니다. 당시 덕행면으로 보나 수행면으로 보나 큰 존경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가 가자 소리 하기 전에 원정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안동에서 8대 봉사 하는 집안의 주순이라는 각자님은 정년퇴임 후 의성김씨 ‘천상문화보존회’ 회장을 맡아 시조인 청계(靑溪) 선생 탄생 500돌 기념문집과 전기, 문중사 논문집 등 3권

는 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과 통하지요. 아만심을 버리고 모든 이를 공경하고 보살될 때 불교가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난해하고 현학적인 가르침이 시중에 가득해 혼란스러운 요즘 오히려 팔순 노부부의 ‘하심’ 한 마디가 심중에 가득 채워졌다.

현정원 보살 내외의 이런 불공기도 공덕인지 슬하의 5남매 모두 국내 유수의 대학 출신으로 재계, 학계의 요직에 봉직하고 있다.

어디서나 진언연승을 할 수 있고 누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력으로 수행정진한다는 잠정을 갖고 있다며 이 좋은 수행법을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엔 무얼 위해 불공하냐는 물음에 팔순 노부부는 이렇게 말한다.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들 잘 되기만을 축수할 따름입니다”

도가 영글면 무원(無願)의 경지가 된다고 했



키고 할 일 다 한 후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한 가함도 배어 나왔다.

현정원 보살은 대구에서 살림을 할 때 처음 진언수행법을 만났다. 하루는 무슨 일로 숙이 상해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남산동 참회원에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따라가 보았다고 한다. 좌복에 앉아 있노라니 좁전까지 상해 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고 다른 상념들이 밀려왔다. ‘아, 마음이란 것도 이처럼 무상하구나’ 하

창종 당시 원정 성사님의 곡진한 가르침과 수행력에 감화되어 진각종을 나오게 됐지만 한편으로 조금 섭섭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정 성사의 훌륭한 인품과 언제나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에 자신은 물론 초창기 교도들이 큰 신심을 내곤 했다고 회상했다.

“원정 종조님은 아주 명민하신 분이 셧어요. 진각종의 중추 역할을 다 해내시며 준제관음법을 발굴 제시 하셨습니다. 성사께서는 밥을 먹

을 퍼내는 등 열정적으로 일하기도 했다. ‘원정님께서는 청계선생의 자제이고 퇴계선생의 상수 제자였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선생의 얘기를 잘 알고 계셨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안 내려가지도 소상히 알고 계시 만큼 유학에도 밝으시고 다감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교도들이 흠모하고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50여년을 수행한 분의 불교관이 궁금해졌다.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노부부는 한마디로 하심(下心)이라고 말한다.

“솔직히 불법의 깊은 내용은 잘 모른답니다. 굳이 한 마디 하자면 수행인은 하심하는 마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이중 장녀 길상화 보살은 그림자처럼 부모님을 보필하며 신행생활에 매진하고 있다. 이화 여대에 다닐 만큼 재원이기도 한 그는 중학시절 어머니를 따라 서원당에 다니곤 했지만 본격적으로 수행을 한 것은 약 7년 정도라 한다. 부모님댁 인근 아파트에 살며 살림이며 안부를 챙기고 절에도 모셔다 드리기 그야말로 효녀라 할 수 밖에 없다.

“수행을 일과로 하시면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 오신 부모님을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수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정송하는 게 생활의 큰 부분이라는 길상화 보살은 총지종 수행은 언제

든가,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 ‘저 분들 이야말로 무원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상념이 스쳐갔다.

윤우채 기자

기도와 불공으로 마음을 길러 나가야 아만심을 버리고 모든 이 공경할 때 불국토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봄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봄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애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봄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 031) 915-3856 정진숙 실장 (송우섭 보살 삼녀)
홈페이지 : bomstudio.com

